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환경에서 실현된 한국대학생들의 영어요구화행*

서재석**

- 차례 -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3. 연구
4. 연구 결과 및 논의
5. 결론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수행되었음.

** 인하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jssuh@inha.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환경인 채팅을 통해 한국학습자들의 영어 요구화행능력을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16주에 걸친 영어 채팅에서 나타난 한국대학생들의 영어요구화행을 요구책략, 완화제(downgraders), 그리고 지지홍정(supportive moves)에 따라 분석하여 피험자들과 목표어화자들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내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피험자들은 영어요구화행 수행에서 직접성(directness)이 강한 명령형태를 통해 요구책략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많았으며, 공손 표현을 위한 완화제사용에서 공손 표시(please)와 시제(tense) 유형에 주로 의존하고, 목표어화자들에 비해 전체 완화제사용 빈도가 낮았으며, 특정 유형(grounders)의 지지홍정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목표어화자들에 비해 지지홍정의 활용에서 소극적이었다. 이런 결과는 영어요구화행수행에서 피험자들이 목표어화자들에 비해 덜 공손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요구행위에 대한 이유나 설명을 통해 행위의 부담을 줄이고, 응낙가능성을 높이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험자들은 L2사회-문화적 규범에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영어요구화행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며, L2화용적 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L2요구화행능력배양을 위한 L2화용적 교수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L2화용적 능력, 화행, 영어요구화행, 요구책략, 완화제, 지지홍정

1. 서론

지난 수십 년 동안 L2교수·학습과 연구에서 커다란 다양한 변화들을 목격할 수 있는데, 한 예로, Chomsky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L2교실은 문장속의 규칙과 구조의 이해와 연습을 강조했지만 사회언어학자인 Hymes(1972)가 주창한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의사소통목적의 달성을 위해 문맥속의 언어사용에 초점을 두고 L2교수·학습분야를 현재까지 이끌어 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L2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개발과 측정을 위해 의사소통능력개념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많은 노력(Bachman, 1990; Canale & Swain, 1980; Cummins, 1980; Savignon, 1983)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L1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의 L2사용능력을 기술하고 평가하며, 나아가 교수현장에서 이들의 의사소통능력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려는 수많은 연구들이 실행되었다.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탐구에 중점을 두었던 L2연구의 주요 세부영역으로 중간언어화용론(interlanguage pragmatics)을 꼽을 수 있는데, L2화용적 능력(pragmatic competence)의 기술과 설명을 위해 상황속의 특정 화행(speech act)의 수행에서 학습자와 목표어화자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런 결과를 근거로 L2화용적 능력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Ellis, 1994). 현재까지 중간언어화용론속의 대부분의 연구들에 의하면, 높은 문법적 지식을 갖춘 학습자일지라도 L2화행수행에서 다양한 화용적 오류를 만들어내며, 결과적으로 목표어화자들의 사회문화적 관습과 규범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L2화행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Zumor, 2011; Castro, 2005; Chang, 2010; Min, 2013; Worathumrong & Luksaneeyanawin, 2016; Saito & Beecken, 1997; Yu, 2004). 즉, 문장형성에 주로 관여하는 문법 지식과 문맥속의 언어사용과 밀접한 화용적 지식은 서로 별개이며, 전자가 항상 후자의 성공적 발전과 사용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화용적 능력의 개발과 증진이 독립적으로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 단언 할 수 있다(Bardovi-Harlig, 2012).

중간언어화용론에서는 다양한 화행들(예를 들어, 요구, 사과, 불평, 칭찬, 칭찬응답, 거절, 감사)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특히, 요구(requests) 화행은 다른 화행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과 흥미를 끌 어왔는데, 아마도 일상생활에서 화자는 청자로부터 도움, 정보, 혹은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요구행위를 자주 사용하며, 학습자의 경우에도, 목표어화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의사소통목적을 위해 요구화행을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여겨진다(Fraser, 1978; Koike, 1989). L2연구에서 요구화행에 대한 높은 관심의 또 다른 이유는 요구행위는 기본적으로 체면위협행위(face-threatening act)로서 화자의 이익을 위해 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자유 혹은 권리를 침해하므로(Brown & Levinson, 1987), 화자는 자신의 요구행위를 되도록 간접적, 우회적, 공손하게 실현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의 요구행위로 인해 초래되는 청자에 대한 위협과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요구의 응낙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행위실현에서 공손표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며, 이는 L2학습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L2요구화행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L2화용적 지식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공손표현능력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들이 상황에 따라 L2사회문화적 규범에 맞게 공손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관심을 두었으며, 학습자와 목표어화자들간에 공손행위에서 분명하고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고하였다(Kang, 2011; Kim, 2013; Han, 1999; Hong, 1999; Oh, 2006; Suh, 2006, 2017; Yang, 2001).

대부분의 L2요청화행에 대한 연구들은 자료수집을 위해 담화완성과업(discourse completion task, DCT)을 사용했는데, Kasper와 Dahl(1991)에 따르면, L2화행연구의 약 50% 이상에서 DCT가 주요 혹은 보조 자료수집도구로 활용되었을 정도로 DCT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런 DCT에 대한 강한 선호경향은 DCT가 지닌 여러 장점들에 기인하는데, 우선,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자료수집이 가능하고, 연구의 초점이 되는 상황적 요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조작이 쉬우며, 목표어화자들의 전형적인(stereotypical) 언

어행위에 대한 확인이 수월하기 때문이다(Beebe & Cummings, 1996; Cohen, 1996; Ellis, 1994; Hartford & Bardovi-Harlig, 1992). 그러나, 이러한 매력적인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DCT는 자료수집방식으로 인한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Cohen, 1996; Wolfson, Marmor & Jones, 1989; Xu & Wannaruk, 2015). 즉, DCT는 쓰기 과업으로서, 피험자는 상황에 대한 기술을 읽고, 자신이 해당 상황속의 화자로서 상상속에서 구두로 발화할 내용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자료수집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실제 상황에서 구두로 발화된 것이 아니므로, 상상속의 쓰기를 통한 언어행위가 실제 상황의 구두를 통해 일어나는 자연적 발화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된다(Manes & Wolfson, 1981; Wolfson, 1988, 1989). 이런 DCT의 단점은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학습자의 L2화행수행능력에 대한 기술과 이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DCT자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몇몇 학자들에게 민족지학적 관찰(ethnographic observation)을 통한 자연 자료(natural data)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는데, Manes과 Wolfson(1981)은 화행연구의 바람직한 자료수집을 위해 자연적 상황에서 관찰을 통한 임의적 대화의 수집을 다음처럼 주장하였다: “an ethnographic approach is the only reliable method for collecting data about the way compliments, or indeed, any other speech act functions in *everyday* interactions”(p. 116). 또한, Wolfson(1989)에 따르면, 모국어화자들은 자신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직관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대화를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임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Wolfson과 Marmor 그리고 Jones(1989)도 DCT자료는 모든 면에서 자연 자료와 견줄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자연적, 임의적 자료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요약하면, L2화행의 많은 연구가 학습자와 목표어화자간의 화행실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며, 한국학습자를 포함한 다양한 L1배경을 지닌 학습자들이 L2요구화행수행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대

부분의 L2요구화행의 연구들이 자료수집을 위해 앞서 언급된 심각한 문제를 가진 DCT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경향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한국학습자들의 L2요구화행능력을 인위적으로 고안되고 조작된 상황이 아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의사소통적 상황에서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 한국대학생들의 영어요구화행능력을 임의적인(spontaneous) 채팅속에서 실현된 요구행위들을 수집, 분석하여 L2화행능력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1. 한국학습자들이 채팅에서 영어요구행위실현을 위해 사용하는 요구책략, 공손책략 그리고 지지홍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2. 한국학습자들과 영어모국어화자간의 영어요구행위실현에서 나타난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L2요구화행과 요구책략

L2요구화행의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L1배경은 대체로 인도-유럽어족에 속한 언어들(즉, 독일어, 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헤브루어, 스페인어)에 집중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어, 일어, 한국어와 같은 동양 언어를 L1배경으로 갖는 학습자들을 피험자로 참여시킨 연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Matsumoto, 1994; Gu, 1990). 더구나, 중국 혹은 일본학습자들보다 한국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행된 L2요구화행연구는 훨씬 적은 실정이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DCT자료에 근거하여 학습자들의 L2화행능력을 기술하고 평가했으므로, 앞서 언급했듯이 DCT자료와 자연 자료와의 확연한 차이를 고려한다면, DCT

자료에 과도한 의존은 학습자들의 L2요구화행능력의 완벽한 이해와 설명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한국학습자들의 L2요구화행연구는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요구행위실행과 요구행위실행에 사용된 공손표현을 기술하고 측정하는데 목표를 둔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그룹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Han(1999)은 화용적 교수(pragmatic instruction)와 화용적 능력 배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수실시 전과 후의 한국대학생들의 영어요구행위를 DCT를 통해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6주간의 교수 이후에 수집된 요구행위가 교수 전보다 더욱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며, 공손했음을 발견하고 화용적 교수 활동이 화용적 능력발달에 긍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마찬가지로 Hartford와 Bardovi-Harlig(1996)는 다양한 L1배경을 가진 대학원생들로부터 1년에 걸쳐 수집된 이메일에 나타난 영어요구행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학습자들은 일본 혹은 대만학습자들과 비슷하게 자신들의 영어요구행위를 영어모국어화자들에 비해 좀 더 직접성(directness)이 강한 요구책략들을 통해 실현했으며, 완화제(downgrader)를 통한 공손표현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공손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Kim(2013)도 3년에 걸친 이메일을 통해 수집된 한국대학생들의 영어요구화행을 분석하여, 가장 빈번히 활용된 요구책략으로 imperative와 want statement를 밝혀내고, 이들의 강한 직접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보이지 못해 화용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적절한 공손능력배양을 강조하였다. 또한, Won(2012)은 한국초등생들을 대상으로 DCT를 통해 수집된 영어요구행위를 분석하고, ESL학습자와 EFL학습자들간에 요구행위실행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두 그룹의 학습자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특정 요구책략, Can you...?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였는데, 이는 학습자들 모두 영어공손표현에 노출되고 연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체계적인 화용적 수업의 적극적 실시를 주장하였다.

2.2. L2요구화행과 공손표현

한국학습자들의 L2요구화행을 탐구한 또 다른 그룹의 연구들은 요구행위에 나타난 공손표현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와 영어모국어화자간의 공손행위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예로서, Hong(1999)은 DCT를 사용하여 한국학습자들과 영어모국어화자들의 영어요구화행속의 공손표현을 비교하였는데, 학습자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목표어화자와 달리 다양한 정도의 공손성을 보였는데, 한국어의 경어(honorifics) 활용을 통한 공손표현 방식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마찬가지로 Suh(1999)도 설문을 통해 얻은 ESL한국대학생들의 영어요청화행을 분석하고, 학습자들은 대체로 목표어화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손책략을 활용했지만, 유독 화자와 청자간의 관계가 사회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목표어화자에 비해 훨씬 덜 공손한 책략인 imperative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L1공손규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Yang(2001)은 한국대학생들의 영어요구화행을 1년에 걸친 이메일을 통해 수집하고, 피험자들의 L2공손능력을 완화제를 통해 조사했는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완화제들을 여러 조합으로 활용하여 공손을 표현한 영어모국어화자들과 달리, 학습자들은 주로 please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L2공손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었음을 보고하였다.

Suh(2006)도 L2공손능력을 완화제의 기능으로 정의하고, DCT를 통해 수집된 영어요구화행에서 ESL한국대학생과 EFL한국대학생들 모두 대부분의 상황에서 목표어화자들과 완화제의 활용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결국 L2공손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Yang(2005)은 교과서와 EFL학습자들의 L2공손능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7종의 고교영어교과서에 나타난 routine formulas와 완화제들의 종류와 빈도를 분석한 결과, 목표어화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정교하고 세심한 공손을 표현하는데 활용되는 완화제들이 교과서에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음을 알아내고, L2공손능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Kang(2011)은 한국대학생들의 영어요구화행을 DCT를 통해 수집하고, 요구행위속의 공손표현의 대부분이 제한된 유형의 표현들(예로서, please, excuse me, could, would)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L2상호작용에서 오히려 의사소통 단절을 초래할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3. L2요구화행과 지지홍정

L2요구화행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지지홍정은 요구행위의 부담을 줄이고, 공손을 높이는 완화적 지지홍정(mitigating supportive moves)과 화자의 요구 의도를 강조하는 강화적 지지홍정(aggravating supportive moves)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대체로 요구자는 자신의 요구행위가 초래하는 부담을 덜고, 공손하게 보이며, 나아가 요구행위의 응낙가능성을 높이고자 완화적 지지홍정에 대한 강한 선호를 갖고 있다(Altasan, 2016; Blum-Kulka & Olshtain, 1986; Faerch & Kasper, 1989; Hassall, 2001; Han, 1999; House & Kasper, 1987; Kim, 2013; Rintell & Mitchell, 1989; Suh, 2011; Won, 2012). 다양한 요구상황에서 완화적 지지홍정에 대한 선호 경향은 grounder의 빈번한 활용을 통해 나타나는데, 예로서, Faerch와 Kasper(1989)는 덴마크학습자들과 영어모국어화자들간의 영어요구화행의 비교에서 두 집단 모두 grounder를 가장 자주 활용하여 요구화행수행을 위한 적절하고 타당한 이유 혹은 설명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보여주었다. House와 Kasper(1987)는 덴마크와 독일학습자들의 영어요구화행연구에서 학습자들은 영어모국어화자들에 비해 공손표현을 위한 완화제는 덜 사용했지만 완화적 지지홍정은 더 많이 활용했음을 보고하였다. Altasan(2016)도 아랍학습자들과 영어모국어화자간의 영어요청화행을 비교하고, 전자가 후자보다 지지홍정의 활용 빈도수는 적었지만,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지지홍정은 grounder임을 밝혀내었다.

영어요구화행수행에서 한국학습자들의 완화적 지지홍정에 대한 선호 현

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행위에 대한 이유나 설명을 통해 요구화행속의 부담을 줄이고,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상대방에게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보이려는데 초점을 두었다(Han, 1999; Kim, 2013, Suh, 2011; Won, 2012). Han(1999)은 화용적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 전과 후의 한국대학생들의 영어요구화행을 비교한 결과, 학습자들은 화용적 수업을 받은 후에 요구행위에서 다양한 유형의 완화적 지지홍정의 활용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행위를 좀 더 타당하고, 설득력있게 수행할 수 있었다. Kim(2013)도 이메일을 통해 수집된 한국대학생들의 영어요구화행을 분석하였는데, 학습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완화적 지지홍정을 사용하였고, 특히 *grounders*가 전체 지지홍정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요구화행수행시에 한국학습자들을 포함한 대부분 L2학습자들의 지지홍정활용에서 두드러진 한 가지 특징은 영어모국어화자들과 비교하여 학습자들이 대체로 발화를 많이 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화행수행에서 학습자들의 말 많음(*talkativeness*) 현상은 화용적 오류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는데, Edmondson과 House(1991)는 발생원인에 대해, 특정 상황에서 의사소통 목적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L2문장의 형태와 의미의 적절성(*appropriateness*)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학습자들은 목표 화행수행을 위해 중언부언함으로써 자신의 불충분한 화용적 지식을 보상받고, 의도된 메시지 전달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과 바램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Grice(1975)의 대화 협력 원리에 의하면, 학습자들의 L2화행수행중의 중언부언은 양(*quantity*) 맥심을 위반하게 되는데,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제공된 정보는 일부가 잉여적이거나 관련성이 적을 수 있어 목표 화행의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약화시킬 수 있고, 화자의 의도된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화용적 오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 될 수 있다.

3. 연구

3.1. 피험자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72명의 EFL한국학습자들로 광역시에 위치한 종합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2학년 혹은 3학년 학생들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였고, 자신들이 스스로 평가한 영어능력은 중-하(intermediate-low) 레벨로 부터 상(advanced) 레벨에 걸쳐 분포하였다. 피험자 전체의 약 2/3가 여학생들이며, 연구 참여 당시에 이들은 전공선택과목인 'Multimedia English'를 수강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컴퓨터 활용을 통한 영어학습에 대한 열정과 동기가 높고, 컴퓨터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3.2. 자료수집 도구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도구는 채팅(chatting)인데,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다양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메시지 전달과 이해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언어사용의 진정성과 임의성이 높은 자연 자료를 얻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 되었다(Manes & Wolfson, 1981; Wolfson, Marmor & Jones, 1989; Wolfson, 1989). 수강 첫 날, 피험자들은 한 학기에 걸쳐 동료수강생과 짝을 이루어 인터넷상에서 영어채팅을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즉, 피험자들은 들어서 한 조를 이루어 원하는 토픽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2주에 한 번씩 영어로 채팅을 실시하고, 채팅의 결과물을 출력하여 격주마다 제출했으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이 늦으면 감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과제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3.3. 자료 분석

전체 피험자인 72명으로부터 36개의 채팅쌍이 총 14주 동안 7회의 영어 채팅을 실시한 결과물인 채팅 출력물이 수집되었다. 연구의 초점이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대학생들의 영어요구화행실현을 위한 화용적 능력을 알아보는 데 있으므로, 자료분석의 첫 단계로 채팅 스크립트에 나타난 영어요구화행을 확인하고 찾아내었다. 이렇게 확인된 모든 영어요구화행은 Blum-Kulka와 Olshtain 그리고 Kasper(1989)의 코딩 스킴에 따라 요구화행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부분들(즉, 요구책략, 공손책략 그리고 지지홍정)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대학생들과 영어모국어화자들간의 영어요구화행실현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영어모국어화자들에 의해 수행된 요구화행들 중에서 본 연구가 친근감이 존재하는 급우사이 혹은 친구사이에서 실현된 요구행위만을 다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L2 base-line 자료로서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영어모국어화자들의 요구화행을 포함한 Faerch와 Kasper (1989), Han(1999), House(1989) 그리고 Suh(1998, 2006, 2011)를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영어 채팅에서 사용된 요구책략 유형들

영어 채팅에서 피험자들이 요구화행실현을 위해 사용한 요구책략의 수는 총 334개이며, <표1>에서 보듯, 이들은 다양한 유형들(Mood derivable, Explicit performatives, Locution derivable, Want statement, Suggestory, Query preparatory)로 분포되었다.

〈표1〉 영어 채팅에서 사용된 요구책략 유형들

요구책략유형	사용빈도
Mood derivable impositive	112 (33.5%)
Explicit performatives & Locution derivable	14 (4.1%)
Want statement	62 (18.6%)
Suggestory formula	80 (24%)
Query preparatory	66 (19.8%)
총 수	334 (100%)

Blum-Kulka와 Olshtain 그리고 Kasper(1989)의 요구책략의 직접성(directness)에 따라 〈표1〉의 요구책략 유형들을 두 개의 범주인 Direct level과 Conventional Indirect level로 분류해보면, 전자에는 Mood derivable, Explicit performatives, Locution derivable, Want statement의 책략 유형들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Suggestory formula와 Query preparatory의 책략 유형들이 속하게 된다. 이 분류에 따르면, 피험자들은 동료 학우와의 영어 채팅에서 요구화행수행을 위해 Direct level과 Conventional Indirect level에서 요구 책략을 실현한 빈도가 각 56.2%와 43.8%에 해당되므로, 피험자들은 자신의 요구 의도가 발화로부터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Direct level에서 요구 책략을 좀 더 자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Kim(2013)과 Suh(1999)에서 한국대학생들이 영어요청화행수행을 위해 간접책략보다 직접책략을 더 선호한 경향과 매우 유사함을 보인다. 즉, Suh(1999)는 ESL한국대학생들이 가깝고 친근한 상대를 향한 요구화행에서 영어모국어화자들보다 Imperative 와 I want you to 같은 직접책략을 더 자주 활용하였으며, 특히 Kim(2013)은 교수에게 보낸 EFL한국대학생들의 이메일을 통한 영어요구화행의 63%가 직접책

락에 속하는 Imperative, Performative 그리고 Want statement로 실현됨을 보고하였다.

영어 채팅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영어모국어화자들에 비해 요구책락 선택에서 더 직접적이고, 덜 공손한 직접책락에 대한 선호 경향은 다음 연구들의 비교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표2〉 L2요구화행속의 책락 유형에 관한 연구 비교(빈도, %)

	English Native <i>Speakers</i>	Korean Learners of English
현재 연구	Direct: NA	Direct: 56,2
	Conventional Indirect: NA	Conventional Indirect: 43,8
Han(1999)	Direct: 2,7	Direct: 44,2
	Conventional Indirect: 97	Conventional Indirect: 52
Suh(1998)	Direct: 10	Direct: 20
	Conventional Indirect: 90	Conventional Indirect: 77

NA: Not Applicable

Han(1999)과 Suh(1998)에 참여한 영어모국어화자들이 특정 상황(즉, 결석으로 인한 수업 손실을 보충하고자 동료 학우에게 노트를 빌리려 함)에서 요구행위실현을 위해 90% 이상의 간접책락(Conventional Indirect Requests)을 선택한 결과는 가깝고 친숙한 사이일지라도 간접적이고, 공손하게 보여 요구행위의 부담을 줄 일뿐 아니라 화자와 청자 모두의 체면(face)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상대방을 향한 요구행위가 개인의 자유, 권리, 재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둔 개인주의와 수평주의를 강조하는 L2사회-문화적 규범이 영어모국어화자들의 간접책락에 대한 강한 선호 경향의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주의적이고 수직적인 L1사회-문화적 규범에 익숙한 한국대학생들은 가깝고, 친근한 관계인 동료 학우에게 노트를 빌리려 부탁하는 상황에서, 개인적 시간, 노력, 수고의 산물인 노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경시하여, 직접적이고, 힘들이지 않는 명령조의 직접책락을 통해 요구행위를 실현하는

모습은 다분히 모국어 전이 영향으로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학습자들의 직접책략에 대한 선호는 L2규범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자에게 가깝고 친근한 느낌의 청자이지만 그(녀)에게 덜 공손하거나 심지어 무례하게 보일 수 있으며, 나아가 요구의 응낙 가능성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과 자신의 적극적 체면도 위협하는 처지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피험자들의 영어 채팅에서 나타난 요구행위를 위한 직접책략의 선호 경향은 이들이 L2사회-문화적 규범에 바탕을 둔 요구책략 사용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배양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4.2. 영어 채팅에서 사용된 요구화행속의 완화제 유형들

피험자들이 영어 채팅에서 요구화행실현을 위해 요구책략내에서 사용한 완화제의 총 빈도수는 60개이며, 이들은 <표3>에서 보듯, 다섯 가지 유형들 (politeness marker, tense, understater, appealer, downtoner)로 분포하였다.

<표3> 영어 채팅에서 사용된 요구화행속의 완화제 유형들

완화제 유형	사용빈도
Politeness marker	30 (50%)
Tense	18 (30%)
Understater	5 (8%)
Appealer	4 (7%)
Downtoner	3 (5%)
총 수	60 (100%)

피험자들은 공손 표시(politeness marker)와 시제(tense)의 두 유형을 전체 완화제 활용의 80%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자주 사용하였고, 이들의 유형에 크

게 의존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공손 표시 완화제인 please는 전체 활용된 총 완화제 횟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빈번히 사용되었는데, 이는 영어 공손 표현을 위한 피험자들의 please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여주며, Scarcella(1980)에 의하면, 공손 표시(please)는 L2학습 초반기에 터득되며 L2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들이 공손 표현을 위해 과도하게 의존하여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되어왔다(Hassall, 2001; Suh, 2006; Yang, 2005). 따라서 L2요구화행실현에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정도의 공손을 표현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영어 완화제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피험자들의 두 유형의 완화제(공손 표시와 시제)에 대한 강한 의존 모습은 이들이 영어 완화제의 다양한 유형들과 사용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고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표4〉 L2요구화행의 완화제 사용에 대한 연구 비교(빈도, 개수)

	ENS	ESL	EFL	피험자 수
현재 연구	NA	NA	60(30)	72명
House(1989)	79	NA	67	각 그룹 100명
Faerch & Kasper(1989)	50(30)	NA	103(78)	각 그룹 100명
Suh(2006)	56(3)	14(3)	12(3)	각 그룹 20명

(): 공손 표시(please)의 사용 빈도수, NA: Not Applicable, ENS: English Native Speakers, ESL: English Learners as Second Language, EFL: English Learners as Foreign Language

〈표4〉에 의하면, House(1989)와 Suh(2006)에 참여한 EFL학습자들은 두 상황들(룸메이트에게 부엌 청소를 요청하거나 결석으로 인한 수업 손실을 보충하고자 동료 학우에게 노트를 빌리려 함)에서 영어요청화행시 공손 표현을 위해 영어모국어화자들보다 상당히 적은 횟수의 완화제를 사용하였고(79 vs 67, 56 vs 12), 결과적으로 목표어화자들에 비해 덜 공손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Faerch와 Kasper(1989)의 EFL학습자들은 영어모국어화자들보다 완화제를 많이 활용했지만, 전체 사용된 완화제의 절반이 훨씬 넘는 수(78개)가 공손 표시(please)에 해당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목표어화자들과 학습자들(20 vs 25) 간의 완화제 활용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표4〉에 제시된 연구

들 외에도 한국학습자들이 참여한 L2요구화행관련 많은 연구들(Hartford & Bardovi-Harlig, 1996; Han, 1999; Suh, 1999, 2007; Yang, 2001)은, 학습자들은 영어모국어화자들에 비해 완화제를 덜 활용하고, 필요한 공손의 양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여, 덜 공손하거나 심지어 무례하게 인식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피험자들의 전반적인 영어완화제의 활용패턴이 제한적이고, 공손 표시(please) 유형에 강한 의존을 보였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이 동료 학우와의 영어 채팅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L2완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 적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피험자들이 채팅에서 발화한 전형적인 요구책락들의 일부이며, 이들의 L2완화제의 활용 방식을 엿 볼 수 있다:

Tell me more about your trip.
 Please explain more about it!
 Tell me please our last discussion.
 I want to ask you to go out and have lunch
 I want to study with you but I can't ask you,
 Can you tell me why did you cry?
 Could you come to ... station 8 o'clock?
 Why don't we talk about SARS today?

아울러, 다음의 자료들은 동료 학우에게 노트를 빌리거나 친구에게 컴퓨터 사용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영어모국어화자들이 발화한 요구책락들인데, 이들과 피험자들간의 완화제 활용에서 분명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Suh, 1998, p. 194, 237):

Would it be at all possible for me to borrow your notes?
 Could I come over to use your *computer*?

Do you think I could use your *computer*?

I was wondering if I could maybe borrow your *computer* to finish it.

I was just wondering if you would mind if I could copy your notes from last week.

본 연구의 피험자들과 영어모국어화자들간 요구책략내에서 완화제 활용상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목표어화자들은 학습자들과 달리 요구책략안에서 여러 유형의 완화제들을 동시에 활용하거나 2~3개의 다른 유형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여 함께 사용하여,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공손의 양을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손하고, 설득력있게 그리고 협조적으로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피험자들은 L2완화제 활용 관련 화용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4.3. 영어 채팅에서 사용된 요구화행속의 지지홍정의 유형들

영어 채팅에서 피험자들이 요구화행수행을 위해 발화한 지지홍정의 총 빈도수는 53개이며, 이들은 모두 완화적 지지홍정의 유형에 속하였다. <표5>에서 보듯, 피험자들은 완화적 지지홍정의 다양한 하위 유형들(preparatory, precommitment, grounder, disarmer, imposition minimizer)을 활용하였으며, 이중 grounder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표5> 영어 채팅에서 사용된 요구화행속의 지지홍정의 유형들

지지홍정 하위 유형	사용빈도
Preparatory	2 (3.8%)
Precommitment	4 (7.5%)
Grounder	45 (84.9%)
Others (disarmer & imposition minimizer)	2 (3.8%)
총 수	53 (100%)

피험자들이 채팅과 같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상황에서 L2요구화행수행을 위해 grounder에 중점을 둔 지지홍정의 사용패턴은 인위적인 담화완성과업을 통해 L2요구화행의 자료수집에 의존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Altasan, 2016; Faerch & Kasper, 1989; Han, 1999; House & Kasper, 1987; Kim, 2013; Suh, 2011; Won, 2012). 즉, 학습자들은 grounder를 통해 요구행위에 대한 이유 혹은 정당성을 상대방에게 알려 자신들의 행위가 타당하고 설득력있게 보이며, 나아가 요구행위의 부담을 줄여 응낙 가능성을 높이려는 바램을 갖고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표6〉 L2요구화행의 지지홍정에 대한 연구 비교(빈도, 개수)

	ENS	ESL	EFL	피험자 수
현재 연구	NA	NA	53	72명
House(1989)	10	NA	59	각 그룹 100명
Faerch & Kasper(1989)	17	NA	73	각 그룹 100명
Suh(2011)	38	71	44	각 그룹 20명

〈표6〉에 의하면, House(1989), Faerch와 Kasper(1989), 그리고 Suh(2011)에 참여한 EFL학습자들은 두 상황들(즉, 결석으로 인한 수업손실을 보충하고자 동료 학우에게 노트를 빌리거나 컴퓨터 고장으로 인해 친구에게 컴퓨터사용을 부탁함)에서 요청행위시 영어모국어화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횟수의 지지홍정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이 학습자들의 L2요구화행에서 말 많음(verbosity)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본 연구의 피험자들의 지지홍정사용패턴도 말 많음 경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에 있다. 비록 본 연구에는 목표어화자로부터 수집한 L2 base-line 자료가 없어, 피험자들이 발화한 지지홍정의 전체 빈도의 많고 적음을 결정하기 쉽지 않지만, 한 학기동안 72명의 피험자들이 7회에 걸친 채팅을 통해 총 336개의 요

구책략들을 발화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이들의 53개의 지지홍정활용의 전체 횟수는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는데, 사실, 피험자들의 요구화행이 지지홍정없이 요구책략 단독으로만 실현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S1: It's the first time to chat in June. today's topic? I want to talk about English.

S2: English? so difficult, OK. ... Let's talk about our students.

S1: I know you are a good cook,

S2: I want to invite you,

S1: Wow! thank you, I like all kinds of food,

S1: I plan to go to buying gift for mom & dada's day this weekend.
Would you go with me to go to buy gift?

S2: Um... treating me to lunch,

S1: haha, OK I'll buy delicious food for you,

S2: That's wonderful! Perfect,

S1: Perhaps I will move to ...

S2: I want you to move to one-room nearby Ki young's house.

S1: I'd love to, but the one-room is very expensive. ...

S2: Then I'll look out for a more cheaper room,

S1: Nowaday, house price is very high,

S2: Would you look out for my room with me?

S1: Sure, let's go now!

그렇다면,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지지홍정을 유형과 빈도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요구행위의 정당성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요구행위의 부담을 줄이는데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지지홍정의 소극적 사용은 상대방이 가깝고 친근한 사이일지라도 요구행위가 갑작스럽고, 심지어 무례하게 인식될 수 있어, L2사회-문화적 규범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L2요구화행수행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자료는 동료 학우에게 노트를 빌리거나 친구에게 컴퓨터사용을 부탁하는 상황에서 실현된 영어모국어화자들의 요구화행인데, 이들과 피험자들간의 지지홍정 사용에서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Suh, 1998, p. 194, 206):

“I was wondering if I could borrow your lecture notes. I was sick last week and missed classes. I promise to have them back to you tomorrow. Thanks a lot.”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notes from last week. I was sick, I would really appreciate it. Thanks.”

“Hey, I’m having a major crisis over here! Can I use your *computer* tonight? That paper I was typing is completely gone.”

“Hello, will you be using your *computer* tonight? I really need your help. My *computer* just broke and my term paper is unfinished. Since your *computer* is the same, may I use it to finish my work?”

위의 자료에서 보듯, 피험자들과 목표어화자들간의 친숙한 상대방에게 실현된 요구화행에 나타난 지지홍정 활용의 차이를 초래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 사회에서 가깝고 친근한 사이의 대화에는

제안, 부탁, 혹은 명령행위때 자세하고 분명한 이유나 설명을 통해 상대방과의 협상과 설득에 임하기보다 단도직입적으로 용건만을 단순히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아마도 피험자들도 이런 L1사회-문화적 규범에 근거해서 채팅의 상대방에게 요구화행의 핵심인 요구책략위주의 발화를 선호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L2화행수행이 모국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Chung & Min, 2013; Kim, 2013; Saito & Beecken, 1997; Yu, 2004). 둘째 원인으로 피험자들의 낮은 영어능숙도를 꼽을 수 있는데, 비록 스스로 평가한 L2 능력이 중급에서 상급에 걸쳐 분포했지만, 평소 L2를 통한 발화, 연습의 기회가 충분치 않은 EFL학습자들임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피험자들이 영어 채팅 동안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지지홍정의 문장들을 만족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영어능력이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홍정의 활용에 나서지 못했을 수도 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채팅 환경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고 이를 위한 충분치 않은 시간도 부담으로 작용하여 피험자들은 용건 위주의 발화에 치중하다 보니 지지홍정이 없거나 적은 요구책략중심의 발화를 선호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5. 결론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인위적인 담화완성과업(DCT)에 의존하여 한국 학습자들의 L2화용적 능력을 탐구했던 대다수의 L2화행연구들과 달리, 자연스럽고, 임의적인 채팅 환경에서 한국학습자들의 영어요구화행능력을 알아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즉, 16주에 걸친 채팅에서 한국대학생들이 영어요구화행실현을 위해 사용한 요구책략, 완화제 그리고 지지홍정을 분석하여, 이들과 영어 모국어화자들간의 영어요구화행수행시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피험자들은 영어요구화행실현에서 직접성이 가장 강하고, 분명한 mood derivable을 통해 요구책략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많았으

며, 요구책략내의 공손 표현을 위해 제한된 유형의 완화제들(please와 시제)에 주로 의존하여, 목표어화자들보다 완화제의 활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또한, 특정 유형의 지지홍정(grounder)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목표어화자들에 비해 지지홍정의 활용에서 소극적이었다. 이런 결과는 우선 피험자들과 목표어화자들간 영어요구화행실현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데, 피험자들의 직접성이 강한 명령형형태(imperative)의 요구책략에 대한 선호, 낮은 빈도의 완화제사용, 그리고 지지홍정의 소극적 활용은 피험자들이 L2요구화행에서 목표어화자들과 비교하여 덜 공손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요구행위에 대한 이유, 설명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응낙 가능성을 높이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험자들은 L2사회-문화적 규범에 맞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영어요구화행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며, L2화용적 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관련하여, 우선, 전체 피험자의 2/3가 여대생이므로, 샘플속의 피험자의 성(gender)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였다. 많은 연구들(Andersen, 1990; Romaine, 2003; Sheldon, 1990)은 남성과 여성간의 언어행위에서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함을 분명히 보여주므로, 샘플속의 성 편견(gender bias)은 전체 연구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료수집에서 채팅속의 다양한 문맥적 요인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피험자들은 동료 학우나 친구 사이여서, 친밀도가 비교적 높고,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가 동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문맥에서만 L2요구화행을 수행하였으므로, 친밀도가 낮거나 사회적 지위가 다른 상대방과의 문맥에서 L2요구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 나갈지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더불어, 미래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맥적 요인들을 반영하는 채팅 환경에서 얻은 L2요구화행자료의 분석을 통해 한국대학생들의 L2화행능력에 대한 좀 더 나은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들은 자연스럽게 임의적인 상황에서 한국대학생들의 영어요구화행수행이 여러 측면에서 목표어화자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에게 L2화용적 수업(pragmatic instruction)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한

다(Bardovi-Harlig & Dornyei, 1998; Castro, 2005).

[ABSTRACT]

The Act of English Requests Realized by Korean College Students at
a Naturalistic, Communicative Setting

Suh, Jaesuk(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the pragmatic ability of Korean learners of English in the performance of requests at a naturalistic, communicative setting. A study was conducted in which EFL Korean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as subjects, and data were gathered via English chatting for 16 week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subjects preferred to choose a request strategy at the most direct level, imperative, used downgraders less often than English native *speakers* with a heavy reliance on two downgraders, please and tense, and made less frequent use of supportive moves than English native *speakers* with a strong preference for grounders. It was clear that subjects tended to be less polite than English native *speakers* in their requests, and could not mitigate the imposition created by their requests by offering logical and persuasive reasons or explanations for their requests. So the results indicated that subjects could not realize requests appropriately in the way accepted by L2 socio-cultural norms, and lacked in L2 pragmatic competence. It was concluded that there was a clear, definite need for the implementation of pragmatic instruction in EFL classes to promote L2 pragmatic knowledge on the speech act of requests in explicit, conscious manners.

Key words: L2pragmatic competence, speech acts, english speech act of request, request strategy, downgrader, supportive move

[참고문헌]

- Altasan, A. M., The pragmalinguistic competence in requests: A comparison between one native and two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 2016, 353-359면.
- Al-Zumor, A. G., Apologies in Arabic and English: An inter-language and cross-cultural study, *Languages and Translation*, 23(1), 2011, 19-28면.
- Andersen, E., *Speaking with style: The sociolinguistic skills of children*, Routledge, New York, 1990.
- Bachman, L.,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NY, 1990.
- Bardovi-Harlig, K., Pragmatics in SLA, in S. Gass & A. Mackey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outledge/Taylor Francis, London, 2012, 147-162면.
- Bardovi-Harlig, K., & Dörnyei, Z., Do language learners recognize pragmatic violations?: Pragmatic versus grammatical awareness in instructed L2 learning, *TESOL Quarterly*, 32, 1998, 233-258면.
- Beebe, L., & Cummings, M. C., Natural speech act data versus written questionnaire data: How data collection method affects speech act performance, in S. Gass & J. Neu (eds.), *Speech acts across cultures: Challenges to communication in a second language*, Mouton de Gruyter, New York, 1996, 65-86면.
- Blum-Kulka, S., & Olshtain, E., Too many words: Length of utterance and pragmatic failur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8(2), 1986, 165-180면.
- Blum-Kulka, S., House, J., & Kasper, G., Investigating cross-cultural pragmatics, in S. Blum-Kulka, J. House & G. Kasper (eds.), *Cross-cultural pragmatics:*

- Requests and apologies*, Ablex, Norwood, NJ, 1989, 1-34면.
- Brown, P., & Levinson, S.,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87.
- Canale, M., & Swain, M.,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980, 1-47면.
- Castro, M. C., Why teachers don't use their pragmatic awareness, in N. Bartels (ed.), *Applied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Springer, NY, 2005, 281-293면.
- Chang, Y. F., 'I no say you say is boring': The development of pragmatic competence in L2 apology, *Language Science*, 32(2), 2010, 408-424면.
- Chung, B. H., & Min, S. J., Pragmatic transfer in refusal strategies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2(2), 2013, 129-147면.
- Cohen, A., Developing the ability to perform speech act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8(2), 1996, 253-267면.
- Cummins, J., The cross-linguistic dimensions of language proficiency: Implications for bilingual education and the optimal age, *TESOL Quarterly*, 14, 1980, 175-187면.
- Edmondson, W., & House, J., Do learners talk too much? The waffle phenomenon in interlanguage pragmatics, in R. Phillipson, E. Kellerman, L. Selinker, M. Sharwood Smith & M. Swain (eds.), *Foreign/second language pedagogy research: A commemorative volume for Claus Faerch*, Multilingual Matters, Clevedon, England, 1991, 273-287면.
- Ellis, R.,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4.
- Faerch, C., & Kasper, G., From product to process-introspective methods in second language research, in C. Faerch & G. Kasper (eds.), *Introspection in*

- second language research*, Multilingual Matters, Clevedon, England, 1987, 5-23면.
- Fraser, B., Acquiring social competence in a second language, *RELC*, 9, 1978, 1-21면.
- Grice, H. P.,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Academic Press, NY, 1975, 41-58면.
- Gu, Y., Politeness phenomena in modern Chinese, *Journal of Pragmatics*, 14(2), 1990, 237-257면.
- Han, J. J., Teaching speech act rules of request, *English Teaching*, 54, 1999, 121-144면.
- Hartford, B., & Bardovi-Harlig, K., Experimental and observational data in the study of interlanguage pragmatics, *Pragmatics and Language Learning Monograph Series*, 3, 1992, 33-52면.
- Hartford, B., & Bardovi-Harlig, K.,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A study of written student requests to faculty, in L. Bouton (ed.), *Pragmatics and Language Learning, Monograph*, 7,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1996, 55-69면.
- Hassall, T., Modifying requests in a second 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9, 2001, 259-283면.
- Hong, J. O., A comparative study on polite expressions and meaning in English, *English Teaching*, 54, 1999, 221-252면.
- House, J., Politeness in English and German: The functions of please and bitte, in S. Blum-Kulka, J. House & G. Kasper (eds.),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Ablex, Norwood, NJ, 1989, 96-119면.
- House, J., & Kasper, G., Interlanguage pragmatics: Requesting in a foreign language, in W. Lorsch & R. Schulze (eds.), *Perspectives on language in performance*, Gunter Narr, Tübingen, 1987, 1250-1288면.
- Hymes, D.,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 J. Holmes (eds.), *Sociolinguistics: Selected readings*, Penguin, Baltimore, 1970, 269-293면.

- Kasper, G., & Dahl, M., Research methods in interlanguage pragmatic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3(2), 1991, 215-247면.
- Kang, H. S., An analysis on politeness in Koreans' request realiza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 2011, 53-80면.
- Kim, J. Y., Learning how to perform L2 speech act in EFL context,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9, 2013, 57-82면.
- Kim, M. H., How appropriately do Korean college students make email requests in English? *Modern English Education*, 14, 2013, 1-21면.
- Koike, D. A., Pragmatic competence and adult L2 acquisition: Speech acts in interlanguag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3, 1989, 279-289면.
- Manes, J., & Wolfson, N., The compliment formula, in F. Coulmas (ed.), *Conversational routine*, Mouton, Hague, 1981, 115-132면.
- Matsumoto, K., Introspection, verbal reports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strategy research,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0(2), 1994, 363-386면.
- Min, S. J., Korean EFL learners' apology strategies: Being appropriate in interlanguage speech acts, *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57(3), 2013, 283-302면.
- Oh, M. K.,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compliment behavior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Studies in Modern Grammar*, 43(1), 2006, 155-175면.
- Rintell, E., & Mitchell, C., Studying requests and apologies: An inquiry into methods, in S. Blum-Kulka, J. House & G. Kasper (eds.),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Ablex, Norwood, NJ, 1989, 248-272면.
- Romaine, S., Variations, in C. Doughty & M. Long (eds.), *The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Blackwell, Malden, MA, 2003, 409-435면.
- Saito, H., & Beecken, M., An approach to instruction of pragmatic aspects: Implications of pragmatic transfer by American learners of Japanes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1(3), 1997, 363-377면.

- Savignon, S., *Communicative competence: Theory and classroom practice*, Addison-Wesley, Reading, MA, 1983.
- Scarcella, R., On *speaking* politely in a second language, in C. Yorio, C. Perkins & J. Schachter (eds.), *On TESOL '79: The learner in focus*, TESOL, Washington, D.C., 1980, 275-287면.
- Sheldon, A., Pickle fights: Gendered talk in preschool disputes, *Discourse Processes*, 13, 1990, 5-31면.
- Suh, J. S., *Interlanguage requests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diana, 1998.
- Suh, J. S., Pragmatic perception of politeness in requests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7, 1999, 195-213면.
- Suh, J. S., Politeness behavior in requests as a function of downgrading, *English Teaching*, 61, 2006, 155-184면.
- Suh, J. S., Non-native *speakers'* verbosity in speech act performance, *Modern English Education*, 12, 2011, 1-22면.
- Suh, J. S., Compliment and compliment response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English chatting,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6(1), 2017, 83-106면.
- Wolfson, N., The bulge: A theory of speech behavior and social distance, in J. Fine (ed.), *Second language discourse: A textbook of current research*, Ablex, Norwood, NJ, 1988, 21-38면.
- Wolfson, N., *Perspectives: Sociolinguistics and TESOL*, Newbury House, New York, 1989.
- Wolfson, N., Mamor, T., & Jones, S., Problems in the comparison of speech acts across cultures, in S. Blum-Kulka, J. House & G. Kasper (eds.),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Ablex, Norwood, NJ, 1988, 174-196면.

Won, K. M., Different politeness strategies in requests affected by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1(1), 2011, 223-246면.

Worathumrong, S., & Luksaneeyanawin, S., Interlanguage pragmatics study of compliments among Thai EFL learners, *Journal of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20, 2016, 157-182면.

Xu, L., & Wannaruk, A., Reliability and validity of WDCT in testing interlanguage pragmatic competence for EFL learners,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6(6), 2015, 1206-1215면.

Yang, E. M., Organizational patterns of the requestive email by Korean English speakers, *English Teaching*, 56, 2001, 3-30면.

Yu, M. C., Interlinguistic variation and similarity in second language speech act behavior,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8, 2004, 102-119면.

접수일: 2021. 03. 15 총평일: 2021. 04. 26 게재확정: 2021. 04. 27